

(약력-2022.10 현재)

박광철(朴光澈)/ Park, Kwang-Cheol

- 4대째가업전수
- 백제예술대학 산업제품디자인과 졸업
- 개인전 12회 (평택, 익산, 김제, 전주)
- 도자소품전 7회(전주)
- 부자전 11회 (전주)

- 공모전

- 온고을전통공예대전 은상(전주전통공예인협회, 2002)
- 전국기능경기대회 금메달(국제기능올림픽조직위원회, 2004)
- 전라북도공예품대전 대상(전라북도, 2013)
-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장려상(한국공예조합연합회, 2012, 2013)
- 전라북도미술대전 특선(전북미협, 2006, 2015)
- 감오동학미술대전 대상(한국미협 정읍지부, 2019)
-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한국미술협회, 2018, 2021)
- 기타 70회이상 입상

- 수상 및 표창

- 21c를 이끌 우수인재(대통령)상(교육인적자원부, 2003)
- 전라북도지사표창(전라북도, 2004, 2019)
- 전라북도천년명가 선정(전라북도, 2019)
- 황실문화재단 감사패(2013)
- 김제미술협회 공로상(패)(2005,2007)
- 한국문화예술대상 수상(공예발전공로부문, 2015)
- 익산교육지원청 감사패(익산교육청, 2016)
- 표창장 - 한국공예조합연합회(2011,2018), 전북공예조합(2007, 2010), 전북도의회 의장(2022)
국립전주박물관장(2014), (사)한국예총전주지회장(2013), 중소기업중앙회 회장(2020),
(사)한국예총전북지회장(문화예술상, 2016)),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2017) 국회의원(이원택, 2021)

- 심사 및 운영위원 활동

- 벽골미술대전 집행(05, 06)·운영(13, 14, 17, 18)·심사(16, 19)위원 역임
- 한국구상대전운영(09) 및 심사(10)위원 역임

- 전북기능경기대회 심사(06, 08, 21, 22)위원 역임
- 도솔미술대전 심사(07)위원 역임
- 전주전통공예대전 운영(12), 심사(16), 운영위원장(20, 21) 역임
- 갑오동학미술대전 운영(14)·심사(15, 22)위원 역임
- 전북공예품대전 심사(14)위원 역임
- 순천시미술대전 심사(14)위원 역임
- 춘향미술대전 심사(15)위원 역임
- 대한민국황실공예대전 운영(11,12)위원, 집행위원장(11,12) 역임

- 현재

- 한국다도사범자격취득(2급, 1급, 마스터, 국제티클럽)
- 전북미술대전, 춘향미술대전, 전주전통공예대전 초대작가
- 백제도예가회, 전업도예가회 회원
- 전북공예협동조합, 전주전통공예인협회 회원
- 한국미협 김제지부, 징계쟁이들 회원
- 김제시평생학습관 생활도예반 강사
- 사)전라북도전통공예인협회 이사장

- 주소

김제시 죽산면 화초로2 팔봉도예

TEL. 063-547-1192 H P. 010-6610-8080

e-mail. pkc1125@hanmail.net 카페검색:다음`네이버"팔봉도예"

-가업계승-

- 1대 故 박준석 (익산)
- 2대 故 박복래 (익산)
- 3대 박창영 (익산)
- 4대 박광철(김제), 박옥자(경주), 박서연(익산)

-회사현황-

- 2008 공예현장체험 전문교육기관 지정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 2010 농촌체험교육농장 지정(전주교육청, 김제시)
- 2012 지평선체험교실 mou체결(김제시교육지원청)

- 2013 대한민국공예명품지정(kc-12-0037, 찬합)
- 2013 농촌체험지도자과정기초과정수료(농업기술센터)
- 2014 농촌체험지도자과정심화과정수료(농업기술센터)
- 2015 대한민국공예명품지정(kc-14-0009, 연다기세트)
- 2016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인증(제5494호, 여성가족부)
- 2019 전라북도천년명가 선정(제2019-5호, 전라북도)
- 2021 백년소공인 선정(제211003-00513호, 벤처기업부)

* 팔봉도에 소개

* 보유역량

- 1990년 아버지로부터 도자기 만드는 일을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분청자를 제작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현재는 철채(초벌후 철을 상감기법화)작업을 위주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된 기술과 기법으로 지역적 향취가 묻어나도록 하였습니다.

- 도자문화상품을 개발 하던중 꽃과 연계된 상품을 구상하게 되었고, 벚꽃, 매화, 오얏꽃과 비슷한 형태의 꽃을 만들게 되면서 일반인들이 소장하고 싶어할 정도의 크기로 제작하여 문화상품으로 탄생하게 되었으며, 호롱과 수반으로 제작하여 상품화하고 있습니다.(매화수반-디자인등록 제30-1006310호)

* 성장성 및 향후계획

-전체적인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작업의 어려움이 같은걸 계속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런점을 보완하고자 저는 생활자기류와 다도구류 같은 소품은 규격화하였고, 문화상품으로 개발중인 작품들도 규격화된 박스포장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소량이지만 전체적으로 규격화 함으로써 언제든지 같은 크기의 상품을 계속 생산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격화된 상품을 생산하고 기법(문양, 유약)을 다변화 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을 탄생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용해보고 다른 상품들을 구매하기 위해 다시 찾는 빈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4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받은 기술을 가지고 작품활동에 전념하고 있고 보유기술을 보급하고자 도예강좌와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과후 수업(수시로), 평생학습관 강좌(2013-), 학습장 운영(1998-))

-앞으로도 지역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교육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학습 교육에 꾸준히 진행하려 합니다.(2020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하는 천년명가 도예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하는 천년명가 도예교실을 운영중이며, 매년 성인 20-25명, 학생 10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완성된 작품으로 전시회와 공모전에 참여를 하고 있다.)

* 기 타

-아버지로부터 배운 기술을 꾸준히 연마하고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개인전 12회)
또한 아버지와 함께 1-2년에 한번씩 개최해온 부자전이 11회를 이어 올해 12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